

다이와보 - “인지질 폴리머”로 피부보호 천 개발

다이와보는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생체세포(生體細胞)의 복합지질(複合脂質)의 하나인 “인지질 폴리머(磷脂質 polymer)”를 가공하여 고착시킨 천을 “레이폴리”라는 상표로 2004년 춘하절 소재로 시판하게 된다. 이 가공천은, 천에 잔류하고 있는 합성세제 등의 자극(刺戟)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이 폴리머는 일본 굴지의 유지(油脂) 제조업체가 인공혈관, 콘택트 렌즈, 화장품 등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하였다. 다이와보는 이 폴리머를 섬유에 가공하여 고착시킴으로써 천에 남아 있는 합성세제 등의 자극물질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주도록 하고 있다.

합성세제에 많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界面活性劑)가 세탁 후에 여러 번 물로 헹구어도 잘 빠지지 않아 세탁 후에도 천에 남아 있으면, 사람에게 따라 이런 천의 옷을 입으면 아토피성(atopy性)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레이폴리”는 피부염 등의 영향을 “인지질 폴리머”가 먼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부에의 영향을 완화하게 되며 아토피성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가 약한 어린이의 피부를 보호해 줄 수 있다.

합섬과의 혼방이나 교직(交織)천을 기포(基布)로 한 “레이폴리”는 전술한 작용외에도 대전방지성(帶電防止性), 재오염(再汚染)방지성, 보습(保濕)·급수성(給水性)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한다.